

출신고교에 따른 외식조리학과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와 직업선호도 관계 연구

오 석 태[¶]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과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Job Preference among Culinary Students Based on Their High Schools

Suk-tae Oh[¶]

Dept. of Culinary Arts,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desirable way to design culinary education programs at university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job preference based on their high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high percentage of students decided to choose culinary arts as their major by themselves. Most students found a career in the culinary field demanding, nevertheless, they appeared to have a strong desire to take up the challenge. Students from culinary high schools showe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practical cooking courses, while student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seemed to be highly satisfied with those same courses. On the other hand, students from academic high schools showed a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theory courses, which factored into their decision to choose culinary arts as their major. However, there appeared to b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job preference according to the students. Most students, regardless of satisfaction with their education, considered working abroa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 culinary training program in universities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ademic, vocational & culinary. Each group to have classes in theory, practical and English designed with respect to their prior high school training. In addition, an opportunity for overseas employment should be offered to all three categories.

Key words: job preference, satisfaction with education, culinary arts, high school

I. 서 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들마다 신입생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느라 매우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유치는 대학의 사활을 건 전쟁으로 비유되기

도 한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 저출산 기조가 뚜렷해지고 2017년에 가서는 대학입학정원이 최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고등학교 재학생 수도 2010년 257만 명에서 5만 여명이 줄어 든 252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러한 문제는 수도

¶: 오석태, 010-7658-8003, E-mail: stoh@wus.ac.kr, 대전시 동구 자양동 17-6 우송대학교

권 대학은 물론이고 지방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의 존폐와도 연결된 높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부, 학과 통폐합을 비롯하여 취업률, 특성화 등을 검토 계획하고 있다(Kim CE · Seo JH 2005).

조리를 전공으로 학과를 개설한 대학으로는 201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여 4년제 대학교 25개와 2년제 대학 70개로 우리나라 대학의 1/3에서 조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조리사 양성시스템 기본통계조사 한식재단 2013). 이외에도 전문학교와 학원, 기타 교육기관을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향후 학생자원이 줄어드는 몇 년간 치열한 경쟁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학간 차별화되고 특성화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대학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대학은 중·고등학교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교육환경과는 달리 다양한 학내 문화와 비교적 자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아를 확립해 나가야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점관리를 비롯하여 스스로의 시간을 통제하며 취업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전공을 변경하기도 하고 휴학을 하거나 중도에 자퇴를 하게 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실기교육의 비중이 높은 실용학문적 특성으로 인해 체력이나 신체적인 특성 또는 지금까지의 경험 등에 따라 전공에 대한 부적응 현상과 학업포기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리분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각종 매체로부터 수집한 불명확한 정보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조리와 관련된 인식이 높히 평가되면서 조리 관련학과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Oh ST 2010). 그 이유로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여개에 달하는 대

학에서 조리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학교간 경쟁은 치열한 반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리 관련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향을 보다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만족감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분석에 있어서 출신고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출신고교는 크게 구분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실업고등학교, 조리특성화고등학교, 검정고시, 기타로 나뉜다. 반면 대학에서의 조리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에서 3년간 조리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처음 배우는 기초 과목들이 지루하거나 권태를 느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질 때 자기의 학습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몰두하며 학습자로서 발전한다(Kim AY 2008). 즉, 이미 경험한 학습을 대학에서 다시 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자기 효능감이 낮아져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신념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고학년이 되어서도 반복적인 권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결국 학습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자기직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고 미래 직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2010년 전국 대학생 1,098명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준비 실태 조사에서 10명중 3명은 자신의 희망직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답변이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8.7%가 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심포지엄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미래직업을 선택하는 시기로는 대학교 2학년 1학기때(1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역

시 희망직업에 비해 불필요하게 과하다고 인식(20.9%)하고 있어 대학교육과 미래 희망직업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대학생 직업선택 실태조사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리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출신고교별, 학년별로 분류하여 학습 만족도와 미래 직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출신 고교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분화의 필요성과 차별화된 교육 방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신고교에 따른 조리교육의 만족도를 고취시키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시에 학업 성취도를 높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학업만족도

학업만족도란 기본적으로 학습대상자가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습자의 내적, 외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이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대한 심리적 상태로서 얼마만큼, 또는 과정에 대한 즐거움의 정도로서 성취도, 몰입도, 지속가능성, 학습활동 등의 상태로 나타난다(Joo YJ 2012; Moo N 2010; Bang HM · Park HO 2010). 학업만족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피교육자의 반응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응결과를 통해 피교육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전반적인 인식이란 성취도, 몰입도, 학업지속가능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정기환과 황인호(2004)는 학생들이 학업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요인과 교사요인, 수업요인 및 수업환경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Joo YJ 등(2011)은 전문대학 공학계열 컴퓨터 수업 학업만족도를 대상으로 연구 학습의 내용, 학교의 지원, 학습몰입을 변인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학습몰입

이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다.

학업만족도와 유사한 의미인 학업 성취와 관련하여 고전적인 이론에서는 가정환경을 요인으로 하여 가정환경이 지능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Lee JH 2012; Kim AY 2008; Kim CE 2005). 그러나 근래 후기부터는 가정환경보다는 학교환경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더 강하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Gunawardena & Zittle 1995; Stacey, 2000). 특히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주도적인 역할이 수행되는 학습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Johnson et al 2008) 이러한 학교 환경으로는 학교 및 학급간 작용적 변인, 교수자만족도, 학문적 경쟁요인이 학습자들의 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학교간 차이도 있지만 학교 내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ovai 2002; Ricahardson & Swan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Kang MH 등(2010), Kim JJ 등(2010)은 학업성취도가 수업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문적 경쟁, 협동, 친밀성, 교과목에 대한 능력, 조직의 민주성, 교사와 학습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요소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일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조리과 관련하여 학습자 개인의 측면에서 졸업한 고교별 특성 변인을 다룬 연구가 부족하고 이를 찾아보기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리과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 고등학교와 학업만족도 관계 그리고 직업선택도간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2. 조리직업선택도

‘직업(職業)’이란 사전적 의미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단어를 조금 더 세분하여 직(職)과 업(業)을 구분하여 보면 ‘직(職)’은 역할을 말하고 ‘업(業)’은 일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 분담 및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비교적 지속적인 일을 말한다(유홍준 2002).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21세기에 와서는 직종과 직무가 고전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측면이 부각되었는데, 사람들은 직업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김충기(2000)는 직업의 가치를 생계적 가치, 공헌적 가치, 자아실현가치로 구분하였다. 반면 선호(選好)란 어떤 선택에 있어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으로 직업 즉 조리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직업 중에서 흥미와 관심이 높은 성향을 조리직업 선호도라고 한다. 초기에는 직업흥미라고 표시하였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만족 또는 불만족의 표현으로서 이러한 표현은 개인의 생득적 능력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외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때 사회적 지위를 비롯하여 자신의 흥미와 실제 접근가능한 직업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DR · Kang JH 2007). 이러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대학에서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직업을 조리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형성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의 직업군과 선호도 분야를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제과제빵, 푸드스타일, 기타 로 구분하여 7항목, 조리와 관련된 취업분야 레스토랑, 호텔, 식품업체 조리관련연구소, 제과점, 교, 강사, 창업 및 기타 7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조리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은 자신이 직업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기대하는가 하는 성공기대감,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세계적인 조리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외취업계획, 그리고 조리 분야의 어려운 작업환경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조리 분야의 용이성,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미래 성공을 확신하는 확신성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3. 고등학교

어떤 조직 또는 국가에서 구성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존재한다. 이는 조직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판력과 사명감, 개인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루어진 학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가 진학하는 중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이 두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고등학교가 있다. 이 외에 특수목적에 특목고가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이 있다(Lee DS 2004; 박소영 2007)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일반직업과정을 두고, 실업계에서는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 해운 등 다양한 분야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수는 일반계 1,193개(60.9%) 132만 4482명, 실업계 764개(39.1%) 74만 6986명이다. 본연구에서는 일반계와 실업계를 나누어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일반 실업계와 조리전문교육을 하는 조리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일반계, 실업계, 조리전문고교로 변인을 구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모형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학업만족도 또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Cho HI 2010;Kwon DB 등 2002; Witkow. Fuligni 2007; Wolter 2004; 김경미 1999; 김은경 2005; 오상훈 2008). Ha YJ(2010)는 H 사이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의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연구에서 과제가치가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Yukselturk와 Bulut(2007)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교육만족도와 직업선택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의 시도나 그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를 살펴볼 때 인문계, 즉 일반 고등학교에서 조리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과 이미 조리고등학교에서 3년간 조리교육을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는데, 먼저 고등학교별로 구분을 두어 해당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업만족도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별 직업선택도 검증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학업만족도와 조리직업선택도에서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를 검증해보기 위한 비교경로를 만들게 되었다.

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출신학교별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택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A: 출신 학교에 따라 학업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H1 조리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학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H2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학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H3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학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B: 출신 학교에 따라 직업 선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조리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직업선택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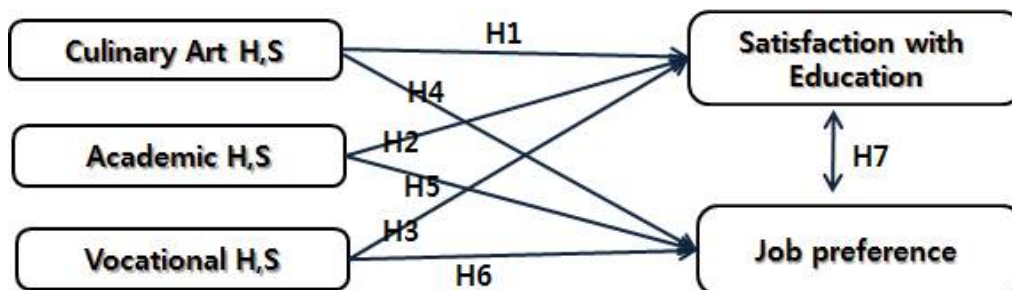
H5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직업선택도가 높을 것이다.

H6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은 직업선택도가 높을 것이다.

C: H7 학업만족도에 따라 직업 선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학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으로 Stein(199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을 강영환(2004)과 강정화(2010)가 그의 연구에 수정 보완한 학업 만족도 측정도구를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학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개의 카테고리에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직업선택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명호(2003)의 측정도구 중 일부를 발췌하고 재구성하여 4개의 카테고리 1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8개 문항을 사용



<Fig. 1> Research Model

<Table 1> Questionnaire configuration

Variable	Questions
School	Culinary Art high school
	Academic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and other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atisfaction with practical courses
	Satisfaction with theory courses
	Satisfaction with language courses
	No regrets about my choice
Job preference	Will to succeed in the culinary field
	Opportunity to get a job overseas
	Will to do hard tasks
	Confidence

하였다. 주요카테고리는 <Table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연구결과분석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리학과 재학생들의 출신고교별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호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지역의 대학교 외식조리학부 학생들을 샘플링으로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으며, 2012년 6월2일~6월30일까지 28일 동안 조리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표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변인에서 설명되었으며 각 학년별 수업이 끝난 후 147매를 배부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결원과 무효 설문지를 제외한 112매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112명의 인구통계학적 표본구성을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체 대상의 55.4%가 남학생이었으며, 43.8%가 여학생이었다. 연령대는 전체 대상의 96.4%인 108명이 20~24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학교 유형에서는 조리 관련 고등학교 출신이 전체 대상의 26.8%였으며, 인문계 출신이 전체 대상의 63.4%로 가장 많았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스템결측값(missing)이 발생하였으나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이를 제거하지 않고 표본에 결측값을 그대로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조리 관심분야, 취업희망분야 및 조리사의 성공을 위한 덕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조리 관심분야에서는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대상의 45.5%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한식이 24.1%를 차지하였다. 양식(45.5%)> 한식(24.1%)> 제과제빵(8.9%)> 푸드스타일리스트(7.1%)> 일식(6.3%)>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구분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62	55.4%
	Female	49	43.8%
	Missing	1	0.9%
Age	20~24	108	96.4%
	25~29	3	2.7%
	Missing	1	0.9%
School	Culinary Art	30	26.8%
	Academic	71	63.4%
	Vocational	10	8.9%
	Missing	1	0.9%

〈Table 3〉 Requisites for success in the culinary field, interest in employment and target positions

Variable	Classification	N	Percent(%)
Target position	Korean	27	24.1%
	Chinese	3	2.7%
	Western	51	45.5%
	Japanese	7	6.3%
	Baking & Pastry	10	8.9%
	Food stylist	8	7.1%
	Others	5	4.5%
	Mechanism missing	1	0.9%
Interest part in employment	Restaurant	40	35.7%
	Hotel	31	27.7%
	Food company	8	7.1%
	Culinary Institute	4	3.6%
	Patisserie	4	3.6%
	Teacher	9	8.0%
	Restaurant owner	15	13.4%
	Mechanism missing	1	0.9%
Requisites for success (Multiple answer)	Skills	77	68.8%
	Knowledge	23	20.5%
	Foreign language skills	58	51.8%
	Relationships	55	49.1%
	Economic power	5	4.5%
	Mechanism missing	1	0.9%

중식(2.7%)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희망분야에서는 레스토랑이 3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호텔이 27.7%로 뒤를 이었다.

2) 통계분석 및 실증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7.0(for Window)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문항 및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설 A와 가설 B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기법으로 Scheffe를 적용하였다. 가설 C ‘학업만족도에 따라 직업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학업만족도의 요인점수(factor score)를 먼저 산정한 다음, 중위수(median)을 기준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학업만족도 상-하 집단에 따라 직업선호도의 차이를 독립 이표본 차이검증(independent two samples t-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업만족도의 요인점수를 산정하기 이전에

학업만족도관련 질문(questionnaire)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적용하였으며, Cronbach's alpha값을 통해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거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검사점수 또는 검사도구의 일관된 정도 또는 오차가 없는 정확성 정도를 말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검사-재검사법(test-retest method), 대안법(alternative form method, 동형검사법), 반분법(split-halves method) 그리고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모두 미국 AERA와 APA 및 NCME(1999)가 공동으로 제안한 ‘교육 및 심리검사를 위한 표준’에서 추천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측정의 효율성을 위해 내적 일치도법의 크론바 알파값(Cronbach's alpha)으로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0.7이상의 크론바 알파값을 가지면, 요인 내의 측

정도구(문항 또는 질문)들의 일관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1) 학업만족도 및 직업선택도 현황

본 연구에서 고려된 주요변인은 조리학과 선택의 이유, 관심분야, 학업만족도, 직업선택도에 대한 현황이다. 조리학과 선택의 이유로는 자신의 의지, 주위의 권유, 성적, 조리에 대한 기호, 미래 전망차원에서 질문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리학과 선택이유는 자신의 의지(평균=4.86)와 조리학과에 대한 기호(평균=4.78)가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주위권유의 평균은 1.95로 가장 낮았다. 관심분야는 유학계획, 인턴쉽, 조리 관련 직업 차원에서 질문되었는데, 조리 관련 직업이 4.64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만족도 측면에서는 학과선택의 만족의 평균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5점 척도(Likert Scale)상에서 3.84로 만족하는 편이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3.14로 학업만족도 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직업선택도 측면에서는 조리를 통해 성공할 것이라는 성공에 대한 기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확신의 평균이 4.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는 조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은 아래 표에서 조리 분야의 용이성으로 정의하였는데, 평균이 2.12인 것으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출신학교에 따른 학업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상정된 가설 ‘A: 출신 학교에 따라 학업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를 적용하였다. 실습프로그램의 용이성과 이론수업형태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학업만족도는 유의한 차

<Table 4> Satisfaction with education and job preference

Main Variable	Sub-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Selection	Self-selection	4.86	0.444
	Recommendation	1.95	1.143
	School grades	2.20	1.354
	Liking for cooking	4.78	0.475
	Future prospect	3.55	0.979
Plans for the future	Study abroad	4.24	0.729
	Internship	4.28	0.765
	Job searching	4.64	0.631
Satisfaction	Practical course	3.84	0.837
	Effectiveness	3.68	0.986
	Easiness	2.95	1.119
	Necessity	4.05	0.923
	Theory course	3.32	0.964
	English course	3.14	1.066
	Major	3.92	1.184
Job preference	Expected success	4.53	0.772
	Overseas job	4.28	0.844
	Hard work	2.12	0.882
	Confidence	4.57	0.746

이는 없었으나 조리 관련 출신학생들의 만족도는 3.6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실업계 학생은 4.00의 평균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는 인문계 출신학생의 평균이 3.81로 가장 높았다. 실습프로그램의 용이성은 출신학교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조리관련 출신학생과 인문계 출신학생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인문계 출신학생과 실업계 출신 학생 간에도 차이는 없었으나, 조리관련 출신학생과 실업계 출신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조리 관련 출신학생들이 가장 실습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움이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수업형태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문계(평균=3.46)> 조리관련(평균=3.17)> 실업계(평균=2.80)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조리관련 출신학생의 평균이 3.2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 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인문계 출신학생의 평균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출신학교에 따른 직업선택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상정된 가설 ‘B: 출신 학교에 따라 직업 선택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검증을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를 적용하였다. ‘나는 반드시 조리를 통해 성공할 것이다.’는 성공에 대한 기대로 정의했으며, 조리관련 출신과 인문계 출신의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평균인 4.5점 정도를 보였으나 실업계는 4.2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해외취업 계획에 대해서는 조리관련 출신학생의 평균이 4.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조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은 조리분야 용

〈Table 5〉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education by the high schools they graduated from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chool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F	p	Scheffe
Practical course	Culinary	30	3.63	0.765	1.295	0.278	
	Academic	71	3.90	0.897			
	Vocational	10	4.00	0.471			
a) Effectiveness	Culinary	30	3.43	0.817	1.781	0.173	
	Academic	70	3.81	1.040			
	Vocational	10	3.50	0.972			
b) Easiness	Culinary	30	3.40	1.003	3.704*	0.028	a
	Academic	71	2.80	1.129			ab
	Vocational	10	2.60	1.075			b
c)Necessity	Culinary	30	3.93	0.907	0.612	0.544	
	Academic	71	4.13	0.909			
	Vocational	10	3.90	1.101			
Theory course	Culinary	30	3.17	0.791	2.713*	0.041	ab
	Academic	71	3.46	0.969			a
	Vocational	10	2.80	1.229			b
English course	Culinary	30	3.23	1.040	0.618	0.541	
	Academic	71	3.14	1.073			
	Vocational	10	2.80	1.135			
Major	Culinary	30	3.70	1.489	2.215	0.114	
	Academic	71	4.08	0.982			
	Vocational	10	3.40	1.350			

p<0.01:**, p<0.05:*

<Table 6>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job preference by the high schools they graduated from

Job preference	School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F	p	Scheffe
Expected success	Culinary	30	4.53	0.681	1.047	0.354	
	Academic	71	4.58	0.730			
	Vocational	10	4.20	1.229			
Overseas job	Culinary	30	4.47	0.819	1.112	0.332	
	Academic	71	4.23	0.848			
	Vocational	10	4.10	0.876			
Hard work	Culinary	30	2.23	0.935	2.871*	0.041	a
	Academic	71	2.15	0.856			a
	Vocational	10	1.50	0.707			b
Confidence	Culinary	30	4.47	0.973	0.762	0.469	
	Academic	71	4.58	0.669			
	Vocational	10	4.80	0.422			

p<0.01:**, p<0.05:*

이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차이검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실업계 출신 학생들이 조리 관련과 인문계 출신 학생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실업계 출신 학생들이 다른 출신학교 학생들보다 조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 측면에서는 실업계 출신 학생들의 평균이 4.8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리 관련과 인문계 출신 학생들은 비슷한 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업만족도에 따른 직업선호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학업만족도는 실습프로그램, 이론 수업형태, 영어프로그램, 학과선택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질문되었다. 학업만족도의 내적 일관성을 신뢰도 분석을 통해 먼저 고려한 다음,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면 학업만족도의 요인점수를 구

하여 중위수를 기준으로 고-저 집단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표에서의 (A)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으로 요인 내 특정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합의 평균값이다. (B)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으로 요인 내 특정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합의 분산을 의미한다. (C)는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으로 특정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D)는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 알파값은 특정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요인의 신뢰도를 뜻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학업만족도를 구성하는 4가지 질문의 내적 일관성이 .720으로 만족된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들 4개 문항의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으며, 4개 문항의 평균으로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학업만족도의 요인점수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학업만족도를 구성하는 4개의 문항의 평균점

<Table 7> Reliability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atisfaction	(A)	(B)	(C)	(D)	Cronbach's Alpha
Practical course	10.38	5.656	0.360	0.580	.720
Theory course	10.89	4.625	0.539	0.449	
English course	11.08	5.002	0.346	0.590	
Major	10.30	4.465	0.384	0.570	

(a)=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1~5점 척도 기준), (b)=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c)=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d)=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론바 알파값

수를 통해 산출하였으며 학업만족도 요인점수의 중위수는 3.55점이었다. 학업만족도의 요인점수가 3.55점 이하는 학업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3.55점 초과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학업만족도에 따른 직업선택도에 대한 차이검증을 독립 이표본 차이검증(independent two- samples t-test)으로 실시하였다.

직업선택도의 모든 영역에서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평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공에 대한 기대와 성공에 대한 확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해외취업 계획과 조리 분야의 용이성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직업선택도에서도 평균이 높은 것으로 보아, 학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선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공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4.78의 평균을 보였으며, 낮은 집단은 4.34로($t=-3.316$)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성공에 대한 확신 측면에서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4.71의 평균을 보였으며, 낮은 집단은 4.45로($t=-1.979$)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해외취업에 대한 계획에서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4.37점의 평균을 보였으며, 낮은 집단은 4.21점의 평균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직업선택도를 보이고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1)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학업설계를 유도함
본 연구의 주요변인 중 학과선택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의 의지(평균=4.86)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조리학과에 대한 선호(평균=4.78)가 두 번째이며, 주위권유(평균=1.95)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보면 현대의 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이 매우 뚜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리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도 높을 것으로 사료되면 한편으로는 자기주도적인 미래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리학과를 선택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로는 직업부분(평균=4.64)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도하에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제공방식인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 한 방향 커뮤니티를 지양하고 SNS를 비롯한 쌍방향 커뮤니티를 개발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법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조리교육과 함께 자기주도적인 학습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

〈Table 8〉 Job preference t-test by schools

Job preference	Satisfaction	N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Expected success	Low group	62	4.34	0.922	-3.316**	0.001
	High group	49	4.78	0.422		
Overseas job	Low group	62	4.21	0.926	-0.977	0.331
	High group	49	4.37	0.727		
Hard work	Low group	62	2.05	0.818	-0.923	0.358
	High group	49	2.20	0.957		
Confidence	Low group	62	4.45	0.881	-1.979*	0.049
	High group	49	4.71	0.500		

p<0.01:**, p<0.05:*

2) 학업만족도와 직업기대감에 대한 현실성 인식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하고 난 후에 만족감(평균=3.92)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면 실습교육만족(평균=3.84)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프로그램(평균=3.14)으로 학업만족도 상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업 기대감에서 조리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평균=2.12)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성공(평균=4.5)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막연한 환상만으로 조리분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이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출신학교와 학업만족도 차이 존재

출신학교에 따라 학업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서 출신학교별로 학업만족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습프로그램에서 조리과 관련고등학교 출신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간에 차이가 유의수준 0.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할 사항은 조리 관련 출신고 학생들의 실습 프로그램 만족도(평균=3.63)가 실업계(평균=4.0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실습 프로그램이 이미 고등학교에서 조리실습을 경험한 조리관련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게는 만족을 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가설 A: 출신학교에 따라 학업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채택되었으나 하위가설 a-1 조리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학업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것으로는 실습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려움의 정도를 묻는 질문인 “실습프로그램 용이성”에서 학교별 유의한 차이(0.05수준)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이미 조리를 경험한 학생들은 어렵게 느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수업에서 역시 인문계 학생들의 가장 높은 만족도(평균=3.46)를 보이며 학과선택만족도에서도 4.0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조리관련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은 영어프로그램 만족도(3.2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출신학교에 따라 직업선호도 일부 존재

출신학교에 따라 조리직업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날 것으로 가정하여 검증을 한 결과에서는 학교별로 조리를 통한 성공의 기대감들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신학교에 관계없이 대학의 조리학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원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조리분야가 어렵고 힘들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를 보였고, 실업계 출신 학생들이 다른 출신의 학생들보다 더 조리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설 B: 출신학교에 따라 직업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부분채택되었다.

5)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호도의 차이 일부 존재

학업만족도 중위수(3.55)를 기준으로 하여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표본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직업선호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1)를 보였다. 하지만 해외취업과 용이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학업만족도는 조리분야에서 성공을 하겠다는 의지와 본인의 의지를 통해서 성공가능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며, 학업만족도에 관계없이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리업무에 대한

난이도 역시 학업만족도와 관계없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C: 학업만족도에 따라 직업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 출신고등학교별로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택도를 알아보고 학업만족의 차이에 따라서 조리직업선택도와와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먼저 결과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출신고등학교에 관계없이 똑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조리관련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의 실습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조리기술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과 조리관련 학과가 아닌 일반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들과 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실습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하며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 가졌던 조리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제언으로는 ① 조리관련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조리관련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리관련 고등학교에 학업과정이 파악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이미 습득한 실습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과정을 줄이거나 인정하여 다음 단계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보다 높은 기술로 넘어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등학교와의 연계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학과프로그램의 변경을 통해서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②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들이 느끼는 실습교육의 힘든 과정을 체계화 시켜 이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체감도를 완화시키는 작업으로는 단계별 강도를 설정하여 낮은 단계 수준의 수업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의 난이도를 정하여 반복적인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대학의 교육과정이 계속하여 다른 종류 또는 다른 수준의 교과과정을 나열하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이라도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택도 부분에서 학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높은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조리분야의 업무 강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외취업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 ③ 학업만족도가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간에 진로지도 계획을 구별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학업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기주도형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해외취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동기부여에 초점을 둔 지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출신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대한 선입견이 일부 해소되었던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고등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대학교간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수준의 단계를 협력하여 체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진보된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리학과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고등학교를 변인으로 하는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택도에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에서 조리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바람직한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그 결과 기본적인 정보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과를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 대부분은 조리분야의 직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고 성공하겠다는 도전적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출신학교별로 학업만족도에서는 조리관련 고등학교 출신학생들이 실습프로그램에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실업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문계 학생들은 이론과목에 만족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과선택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출신학교별 직업선택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학업만족도와 직업선택도간에 관계에서는 학업만족도가 높으면 직업선택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학업만족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조리관련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도입,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실습교육 적응프로그램 개발과 학업만족도에 따른 그룹에 있어서 높은 그룹은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유도하는 반면 하위그룹에게는 해외취업과 같은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영환(2004). e-Learning 환경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세종대학교, 14-65, 서울
- 강정화(2010). e-Learning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최적몰입경험과 학업만족도 및 학습효과와의 관계. 전북대학교, 79-88, 전북
- 김경미(1999). 대학생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9-16, 서울
- 김은경(2005).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도 및 직업선택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30-32, 서울
- 김형석(2003).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선호 직업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5-23, 서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양서원, 96-114, 서울
- 대학생 10명중 3명 취업 희망직종 결정 못해, 한국고용정보원(2010), 1, 서울
- 박소영(2007). 학생들의 학습양식, 과학태도 및 학업 성취도의 관계분석. 경상대학교, 26-28, 경남
- 방형욱(2009).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만족도와 진로 결정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14-22, 서울
- 신명호(2003).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직업선택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34-45, 서울
- 유홍준(2002). 직업사회학. 경문사, 76, 서울
- 오상훈(200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직업포부타협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32-38,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2008). 대학생 직업선택 실태조사, 18-20, 서울
- 한국고용정보원 7월 심포지엄(2010). 대학생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36-72, 서울
- 조리사양성시스템 기본통계조사, 한식재단(2013), 6, 서울
- 통계청(2010). 통계연보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부)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4-25, 서울
- Bang HM, Park HO, (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Ada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ir Studies of Adult Learners,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6(3):3~29.
- Cho HI(2010)The Relationship and Latent Mean Analysis am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ope, and Academic Achievement,

-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4(4):853~873.
- Ha YJ(2010).The effects of learning strategies and task value o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online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3):377~508.
- Joo YJ, Chung AK, Lee SC, Han AR, 2011, Prediction of Academic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Variables in Computer Education of Engineering College Clas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60(2), pp 56-62.
- Joo YJ, Chung AK, Seol HN, Yi SH (2012). The Prediction of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Task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of Cyber Engineeri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49(2):65~74.
- Kang MH · LEE JJ · Han JS · Lee JM(2010).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Tutor's Roles, Social Presence and Learning Outcomes in Online Discussion , *Journal of the Korea Lifelong Education and HRD*, 6(4):159~183.
- Kim AY(2008).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nd Highschoo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2(2):423~441.
- Kim CE · Sea JH(2005). A study on th influence factor of custom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al service, *Business EDU* 38:33~60.
- Kim JJ · Im GY(2010).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ocial Presence and Learning Outcome in Distance Education , *Journal of the Korea Lifelong Education Research*, 16(1):1~4.
- Kwon DB · Oh YJ · Park HM · Son JJ · Song SH(2002).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0(3):181~202.
- Lee DS (2004).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Learning Styles and the Learning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49~70.
- Lee JH (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participation Regarding the Impact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Student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8(1):246~258.
- Oh ST(2010). Study the Satisfaction of the Korean Culinary Students in RI in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6(4):111~124.
- AERA, APA, & MNCME(1999).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 testing. Washington, D.C, Author.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117~148.
- Gunawardena, C. N. & Zittle, F. J(1997). Social Presence as a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in a computer-mediated conferencing environment. *The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1(3): 8~26.
- Havranet, J. E & M. G. Brodwin, (2000). Restructuring Universities and Colleges, *The Student-Focused Paradigm, Education*, 119(1):115~119.
- Johnson, R., Harnik, S. & Salas, E. (2008). An Empirical examination of factors contributing to creation of successful e-learning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6(5):356~369.

- Richardson, J. C. & Swan, K (2003). Examining social presence in online courses in relation to students' perceived learning and satisfaction, *Th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7(1):68~88.
- Rovai, A. (2002).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cognitive learning, and persistence in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5: 319~332.
- Sander, P. K. Stevenson, M. King, & D. Coates, 2000, University students expectations of teaching, *studies in higher education*, 25(3):309-323.
- Stacey, E.(2000). Quality online participation: Establishing social presence . In T. Evans(Ed), *Research in Distance Education*, 5, Deakin University, Geelong: 138-153.
- Stein, J. J.(1997). Asynchronous computer conferencing as a supplement to classroom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impact of selected learner characteristics on user satisfaction and the amount of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Michigan: 67~104.
- Witkow, M. R. & Fuligni, A. J.(2007). "Achievement Goals and Daily School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With Asian, Latino, and European American Background."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584~597.
- Yukselturk, E. and Bulut, S.(2007). Predictors for student success in an online course,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0(2):71~83.

2013년 04월 02일 접수

2013년 07월 25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08월 20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09월 05일 3차 논문수정

2013년 09월 15일 논문게재확정